

## 2017, 6, 17 공시 지방직 리포트 ⑩책형

남부고시온라인 국어과 박병희

지방직 시험을 친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법 문제는 줄어들고, 한자나 생소한 어휘, 복합 지문이 늘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년에 비해 정답을 내는데 까다로운 문항 수가 늘어나 직접 시험을 치른 여러분들의 체감난도(體感難度)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제: 11번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 6번, 12번, 10번

접근 방법에 따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 14번

(출제영역: 11번 한자, 6번 한자, 12번 어휘, 10번 어휘, 14번 문법 품사)

출제 경향: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 공히 2016 시험부터 문법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

지방직 주의사항: 예전처럼 문법학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한자와 어휘 학습을 소홀히 했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 문제 해설

### 1번. 어법

#### 정답 ①

ㅎ불규칙 까맣다, 노랗다, 파랗다, 그렇다

기본형에서 어간, 어미 모두 변한다.

※ 불규칙 찾는 방법: 기본형에서 ‘아(서)’ 또는 ‘어(서)’를 붙여 본다.

놓고, 놓는 기본형 놓다. 기본형에서 ‘다’를 떼어내면 어간이 되는데

놓+아= 놓아 즉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면 규칙

파랗다. 어간 파랑+아서 → 파래서 어간과 어미 모두 본모습이 사라졌다. 불규칙

퍼렇다. 퍼렇+아서 → 퍼레서 불규칙 활용이긴 하지만 어법에는 맞다.

② 또아리(X) 빠리(O), 무우(X) 무(O)

③ 머리말은 합성어이지만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④ 잠귀야 → 잠가야

## 2번. 어휘

### 정답 ③

말길이 되다(=말길 되다):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

밑줄 앞뒤로 문맥을 살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밑줄 친 ‘말길이 되어’ 뒤에 오는 말과 선택지를 연결해보면 ③번만 말이 됨을 알 수 있다.

## 3번. 어휘 단위

### 정답 ④

바늘 한 쌈= 24만 알면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이다.

한약 한 제= 20첩

신약(新藥)이 들어오기 전, 1일분 아침, 저녁 한 첩씩 2첩, 한 제는 10일분 20첩 이런 단위로 팔았다고 한다.

오이 한 거리= 50개, 길쭉한 작물은 50개(반 첩) 단위로 팔았다고 한다.

## 4번 문학 한시

### 정답 ④

春雨(춘우)-허난설헌

春雨暗西池 (춘우암서지) 봄비 내리니 서쪽 못은 어둑한데

輕寒襲羅幕 (경한습라막) 찬바람은 비단 장막을 스며드네

愁倚小屏風 (수의소병풍) 시름에 겨워 작은 병풍에 기대니

牆頭杏花落 (장두행화락) 담장 위에 살구꽃이 떨어지네

이 문제가 만약에 한문만 주어졌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해석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선경후정(先景後情, 앞부분은 경치, 뒷부분은 정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뒷부분 2행을 통해 화자의 심정은 ‘시름에 겹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심정과 같은 자연물은 ‘떨어지는 살구꽃(杏花)’이 된다.

※객관적 상관물: 정확히 말하면 객관적 상관물에는 감정이입과 대조적 자연물이 있다. 감정이입은 화자와 자연물이 같은 심정일 때, 대조적 자연물은 화자와 자연물의 심정이 반대가 될 때이다.

## 5번 문학 시조

### 정답 ②

권농: 조선시대 면단위 행정업무담당자. 또는 농사를 장려하는 직책

이 작품에서는 우계 성혼(1535~1598)을 가리킨다.

언치: 소나 말안장 밑에 깔아주는 담요 따위

지줄 타고: 놀러 타고

아해야: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릴 때 쓰는 호칭어. 시조의 종장에서는 주로 감탄사로도 쓰임.

좌수: 유향소 좌수는 그 고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자가 그 고을 선비들에 의해 선거로 뽑힌다. 임기는 대개 2년. 이 작품에서는 화자 자신(송강 정철)을 말한다.

※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의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어제 밤일 가능성이 높음)

누운 소를 급히 일으켜 안장도 얹지 않은 채 언치만 놓고 놀러 앉아서(술이 급해서)

야!, 내가 왔다고 전하여라(빨리 안으로 안내해라 술 먹게)

## 6번 한자

정답 ①

장광설(長廣舌): 부처님의 혀가 유난히 길고 넓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처음에는 거짓 없고 진실한 말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끝도 없이 길게 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

유언비어(流言蜚語):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비(蜚): 날다 비, 바퀴벌레 비. 특히 날다 비(蜚)는 고어(古語)에서 飛(비)와 동자(同字)로 쓰임.

변명(辨明): 구실을 대며 까닭을 말함. 변(辨)은 ‘분별하다, 밝히다’를 뜻함

다만 변호사(辯護士)의 변(辯)은 말쑥 변, 말 잘할 변이다.

## 7번 문학 현대시

정답 ④

※ 인동차, 정지용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위장, 창자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 삼킨 물이 나린다.

인동차

자작나무 딩그럭 불이  
    딩어리 불  
도로 피여 붉고,  
    시각적 이미지

구석에 그늘 지여  
무가 순 돌아 파릇하고,  
한겨울인데도 파릇하게 자라는 무순은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함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風雪)소리에 잠착하다.  
차를 마시면서 바깥에서 가끔씩 들리는 풍설 소리를 듣고 혹독한 현실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긴다는 뜻.  
잠착(潛着)하다: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골똘하게 씀.(=참척)

산중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얏다.  
삼동(한겨울)을 꼬박 하얗게 밤이 지낼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뜻임.

■제목 ‘인동차’의 의미 ; 겨울을 견디는(忍冬) 차라는 뜻. 작품에서 ‘겨울’은 흔히 혹독한 현실을 가리킴. 이 작품이 1941년에 발표되었으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혹독한 현실은 일제 강점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8번 문법 높임법

### 정답 ④

높임법은 문장 속에서 주어를 찾을 수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된다.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주어가 아닌 것을 높이면 객체 높임법

대화 상황에서 대화 상대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법

“숙희야, 내가 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렸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나’이다.

주어가 아닌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 객체 높임법이다.

대화 상대자인 ‘숙희’에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객체 높임법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주체-], [객체+], [상대-]이다.

## 9번 문학 평론 (문학+독해) 복합 지문

### 정답 ①

칸트는 형식주의 비평가이다. 형식, 구조주의 비평은 내재적 감상법에 주안점을 둔다.

‘시어, 운율, 비유, 상징, 이미지, 화자, 청자 등’ 작품 속에서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을 내재적 감상법 혹은 절대론, 형식, 구조주의 비평이라 한다.

위 ‘제시문’에서는 형식주의(내재적 감상법)자인 칸트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외재적 감상법)자인 톨스토이나 마르크스에 대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예술 작품은 작품 그 자체보다 외재적 영역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제시문’에서

자율적 칸트, 내재적, 선형적, 순수미

타율적 톨스토이, 마르크스, 도덕, 목적론, 사회 경제적, 문화적으로 정리한 뒤

선택지를 연관 활용하면 ②, ④번을 쉽게 지울 수 있다.

③번은 외재적 감상법 중에서 작가 중심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칸트와 연관이 없고, 또 ‘제시문’에서도 그 어떤 연관을 찾을 수 없다.

## 10. 문학 현대 소설 (문학+어휘) 복합 문제

### 정답 ②

파적: 심심함을 잊고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함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안잠: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난장: 몰매

구메밥: 예전에, 옥에 갇힌 죄수에게 벽 구멍으로 몰래 들여보내던 밥

사관: 양쪽 팔꿈치와 무릎 관절

김유정은 ‘개인어 사전’이 있을 정도로 어휘가 어렵다.

소설 속에서 어휘는 인물 중심으로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 11. 문학 시조 (문학+한문) 복합 문제

### 정답 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고 해서 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 하지 말라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지키며 생긴 대로 살아가리라

이 시조는 논어와 중용에서 덕행과 천명을 가르치는 문장을 의역 인용해서 지은 것.

초장 論語 자기가 하고자 아니 하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 것.

중장 論語 君子喻於義(군자유어의), 小人喻於利(소인유어리)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종장 中庸 天命之謂性(천명지위성) 率性之謂道(솔성지위도)

나의 본성은 하늘이 주신 것이고,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率性(솔성) : 타고난 성질, 천성을 좇음

善交(선교) : 잘 사귀

遵法(준법) :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킴

篤學(독학) : 열성(熱誠)으로 학문(學問)을 닦음

篤(독) : 도탑다, 견실하다

## 12. 어휘

### 정답 ②

허구현(X) 허구한(O)

깨닫다: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

뒤어내다(X) 뒤져내다(O)

뉘연히(X) 버젓이(O)

## 13. 한자 (한자+독해+문학) 복합 지문

확집(確執):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

위의(威儀):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

강도(强度): 센 정도

일조(日照): 별 쬔

여기서는 一朝[일조: 하루아침]가 문맥에 맞다.

#### 14. 문법 품사

정답 ②

- ㉠ 흐드러지다 원래 품사 형용사
- ㉡ 찍다 원래 품사 동사
- ㉢ 설레다 원래 품사 동사
- ㉣ 충만하다 원래 품사 형용사
- ㉤ 없다 원래 품사 형용사

일단 문장 속에서

- ㉠ 흐드러지게는 관형어 ‘편’을 수식하므로 부사어
- ㉡ 찍은은 명사 ‘사진’을 수식하므로 관형어
- ㉢ 설레는은 명사 ‘행복감’을 수식하므로 관형어
- ㉣ 충만한은 명사 ‘봄’을 수식하므로 관형어
- ㉤ 없는은 명사 ‘농지거리’를 수식하므로 관형어

그런 다음 전성이나 파생이냐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전성은 원래 품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파생은 원래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 전성과 파생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 보아야 하지만 가장 대표적 구별 방법은 ‘서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 ㉡, ㉢, ㉣, ㉤ 모두 서술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전부 ‘전성’으로 보면 된다.

전성은 품사가 바뀌지 않으니 원래 품사가 그대로 유지된다.

#### 15. 독해

정답 ③

밑줄 문제는 밑줄 앞뒤로 보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4번 째 문단 밑줄 친 정상 과학의 시기 뒷부분을 보면 ‘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부분들은 정립돼 있다.’를 통해 정답 ③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토마스 쿤, 1922-1996, 미국

1962년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에서 '패러다임(paradigm)'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는데, 주로 '변혁'이라는 말과 함께, 기존의 낡은 가치관이나 이론을 뒤엎는 혁명적인 주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는 천동설이 갈릴레오에 의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하는 지동설의 등장은 코페르나쿠스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즉,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특정 분야의 학자들이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법칙, 지식,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넓게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 16. 어휘

정답 ③

유의어: 낱말들이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할 때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③번 ‘어렵하다’는 ‘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어렵잡다’가 와야 한다. 예문에 쓰인 ‘잡다’는 ‘담보로 물건을 잡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유의어가 될 수 없다.

## 17. 독해

정답 ②

중심 화제: 조간대에 사는 생물

1문단: 조간대는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이다.

2문단: 파도에 의해 조간대의 높이가 결정된다.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야 한다.

조간대 하부에 사는 생명체는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

3문단: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한다.

조간대 상부에는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이 분포한다.

①번은 3문단에 있다.

②번은 제시문에 없다.



③번은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번은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 18. 작문

정답 ①

서론을 통해 문제 상황이 ‘수출 실적 부진임’을 알 수가 있다.

결론은 ‘수출 실적 부진’ 원인을 찾아 ‘수출 실적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이 곧 주제문이다.

정답은 ①번이다.

## 19번 문법 인칭 대명사, 지칭어 복합 문제

정답 ③

㉠ 그쪽: 대화 상대방인 ‘너’, ‘당신’을 지칭하는 2인칭 대명사이다.

㉡ 우리: ‘나’를 포함하는 1인칭 대명사이다.

㉢ 저: 자기를 낮추어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이다.

㉣ 할머니: 할머니를 지칭하는 3인칭 대명사, 이때 3인칭 극존칭 ‘당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본인: 이 제시문에서는 할머니를 가리킨다.

㉥ 당신: ㉠과 같은 기능을 하는 2인칭 대명사이다

㉦ 당신: 3인칭 극존칭으로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① ㉠은 2인칭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② ㉡은 ㉣과 다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③ ㉣과 ㉦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④ ㉤과 ㉥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 20. 독해 논증 구조

정답 ③

제시문을 정리하면

- ㉠ 동물도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
- ㉡ ㉠의 구체화
- ㉢ 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 동물들의 소리는 본능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하다.
- ㉤ 동물의 소리는 인간의 언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① 결론은 ㉠이 아니라 ㉤이다.
- ② ㉠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과 ㉣이다.
- ③ ㉤은 ㉠, ㉡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다. 그래서 정답이다.
- ④ ㉢과 ㉣이 ㉤에 대한 근거이다. 즉, ㉢과 ㉣을 근거로 결론 ㉤을 도출했다.

광고: 2017 여름, 날마다 특강

[타박타박] 공무원 국어

[삼위일체] 빨간책 문법

[양산서당] 한자학습의 새로운 길을 찾다

[무료특강] 매일국어